

# “개발 - 보전 갈등해결 최선”

## 15일 문여는 지속가능발전추 고철환 위원장

### 광역단체 위원 추천받아 사전조정 시스템등 구축

■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사회갈등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과 피해도 엄청납니다. 그러나 이같은 갈등은 조화와 균형을 통해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사회적 갈등 해결에 주력할 것입니다.”

국정과제추진위원회로 위상이 격상된 참여정부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15일 출범한다. 고철환(57·사진) 위원장 내정자는 “사회구성원들의 갈등을 오히려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해양학 전공)인 고 위원장은 물관리정책민간위원회 위원, 민주화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장 등을 지낸 해양·환경 분야 전문가다.

지난 7월 위원장 내정자로 결정된 이후 위원회의 역량 강화와 공정한 조직구성을 위해 노력해온 그는 “그동안 위원회는 환경정책의 소극적인 사전 검토와 조정업무에 그쳤고 수행과제 역시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못



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국정과제추진위로 위상이 달라진 만큼 적극적인 정책제안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현재 25명인 위원수를 80명으로 늘리고 갈등해결과 사회통합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조직을 전면 확대·개편할 예정이다. 지난 4개월간 위원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수한 위원을 추천받았으나 16개 광역지자체를 순회하며 설명회를 갖고 시·도지사·광역의회·지자체·시민사회단체를 비롯 직능대표성을 고려해 학계·여성계·산업계 등으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았고 지난 10월 ‘지속가능발전위 기능개편·역할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는 “정책결정 단계에서부터 갈등요소의 사전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갈등조정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사회적 갈등해결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정기자 nivose@